

# 전자·화학·통신 기반 160조 '글로벌 LG' 키웠다

&lt;매출액&gt;

## 구본무 회장의 LG웨이 23년

럭키금성→LG로 과감히 CI 바꿔  
GS·LG 그룹계열 분리… 5배 성장

구본무 회장은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전 회장과 부친 구자경 명예회장에 이어 LG그룹의 '3세대 총수직'을 23년간 수행하며 '전자·화학·통신서비스' 3개 핵심 사업군으로 LG를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은 경영자로 평가받는다. 럭키금성에서 'LG'로 CI를 변경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 기업문화를 과감하게 바꿔놓은 것도 고인의 공이 컸다.

구 회장은 1995년 2월 22일, 부친인 구자경 명예회장이 경영일선에서 은퇴하자 50세의 나이로 LG의 제 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고인은 특유의 끈기와 결단의 리더십으로 LG의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는데 대한 공헌을 했다. 구 회장은 회장 취임



2002년 5월 구 회장(가운데)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 LG

당시 매출액을 1994년 말 30조원 규모에서 GS, LS 그룹을 계열분리하고도 지난 해 말 160조원 규모로 다섯 배 이상 성장 시켰다. 이 가운데 해외 매출은 10조원에서 110조원대로 신장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구 회장은 LG 사업군을 '전자·화학·통신서비스' 3개 핵심 사업군으로 구축해 경쟁력을 높였다. '집념의 승부사' 같은 고인은 ▲부회장 시절부터 끈기있게 개척한 이차전지 사업 ▲단호

한 결단으로 키운 OLED TV 등 디스플레이 사업 ▲통신 사업으로의 과감한 진출 등에서 드러난다.

2005년에 이차 전지 사업이 2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던 악조건 속에서도 구 회장은 "끈질기게 하다 보면 꼭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임직원들을 다독였다. 그 결과 LG화학은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배터리를 개발한 데 이어 중대형 배터리 분야를 개척해 현재 '전기차 배터리 제조 경쟁력 평가'와 '에너지저장장치

(ESS) 제조 경쟁력 평가' 등 중대형 이차 전지 사업 경쟁력 면에서 글로벌 톱으로 평가받는다.

전기차 배터리 수주도 꾸준히 늘려가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30개 회사로부터 42조원에 달한다.

1998년 말 고인은 당시 정부가 주도한 빅딜 논의로 반도체 사업의 유지가 불확실해진 위기 상황에서 LG전자와 LG반도체가 각각 영위하던 LG디스플레이 사업을 육성해야겠다는 의지로 별도의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인 LG디스플레이(LGD)를 설립하는 결단을 내린 바 있다. 특히 1999년 8월 당시 국내 기업이 유치한 외국 자본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던 16억달러를 필립스로부터 유치해 합작사 'LG필립스 LCD'를 출범시켰다. 이후 2008년엔 필립스와 결별해 단독법인 LG디스플레이를 출범시켜 세계 1위 기업으로 키웠다.

구 회장은 과감한 투자의 일환으로 취임 이듬해인 1996년 LG텔레콤을 출범해 개인이동통신사업(PCS) 진출도 선언했

다. 이어 2000년 유선통신사업체인 데이콤을 인수하며 통신사업을 강화했고 2010년에는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통신 3개사 합병을 통해 유무선 통합 LG유플러스를 출범시켰다. LG유플러스는 롱텀에볼루션(LTE) 핵심 서비스로 고착된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을 20%대까지 끌어올리며 통신 시장의 혁신을 주도했다.

구 회장은 일찌감치 국내 대기업 최초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결단하는 등 기업의 토대를 쌓기도 했다. '럭키금성'을 'LG'라는 CI로 변경을 주도한 것도 구 회장의 의지였다.

LG는 1999년 말부터 순환 및 상호출자 구조의 고리를 끊는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계획을 밝히며 지배구조 전환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대기업집단이 순환·상호 출자 구조를 이용해 적은 자본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던 시기에, 자회사는 사업에 전념하고 지주회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등을 관리하는 선진적인 지배구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결단력 갖춘 승부사 이면엔 배려·소통 '이웃집 아저씨'

### 경영진에 "자만, 경계해야" 당부 셀카 요청에 격의없이 어울리기도

"LG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최근의 경영환경을 볼 때 지난 세월 여러분을 헤쳐 나가면서 얻은 교훈들을 깊이 새겨 다시 한번 변화하고 혁신해야만 합니다."

20일 오전 숙환으로 태계한 구 회장이 LG 창립 70주년이었던 지난해 1월 19일

임직원들과의 만찬에서 강조한 '변화와 혁신'이다.

구본무 회장은 회사를 영속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낸 최고경영자(CEO)로 평가받는다. 23년의 회장직 재임 기간 동안 LG의 주력인 전자, 화학, 통신 서비스 등 3대 핵심 사업군을 키워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격적인 경영 철학과 달리 구본무 회장은 평소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오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는 항상 약속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해 상대방을 기다리는 등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긴 것으로 알

려졌다.

구 회장은 틈틈이 경영진에게도 '자만을 경계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당부하면서 리더로서의 배려와 소통을 강조해왔다.

해외 사업장을 찾을 때면 현지 임직원들에게 "제가 이곳에서 환영 받고, 또 LG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멀리 타국에서 고생하고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말하곤 했다.

구 회장의 겸손한 품성과 더불어 전문 경영인에 대한 권한 위임의 경영 방식도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다.

구 회장은 재벌 총수로는 드물게 매우 소탈하고 겸소한 면모를 지녀 구 회장을 처음 만난 사람은 대부분 놀라기도 했다. 일례로 구 회장이부장 시절 해외출장을 함께 간 기업인사가 나중에 귀국해서야 동행한 구 회장이 그룹 회장의 맏아들임을 알고 놀랐다는 사실이 전해질 정도였다.

주요 행사에 참석하거나 해외 출장 시에도 비서 한 명 정도만 수행토록 했고, 주말에 지인 경조사에 갈 경우에는 비서 없이 훌로 가는 경우도 있다. 수수한 옷차

림에 '이웃집 아저씨'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직원들과도 소탈하게 어울리는 회장으로 세계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회장 취임 초 그룹 임직원들을 시상하는 행사에 직원들과 똑같은 행사로 고개를 돌려 티셔츠 차림으로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임직원을 격려하기도 했다.

인재 유치 행사는 300여명에 달하는 참가 학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학생들의 요청에 흔쾌히 '셀카' 사진도 함께 찍으며 격의 없이 어울리기도 했다. 또 행사장에서 만난 학생들이나 직원들에게 격의 없이 다가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라고 먼저 권하기도 하는 등 '자상하고 마음씨 따뜻한 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김나인 기자

BERLINER FORMAT  
Mobile Economy  
Tube Platform  
Re-innovation  
Out station 1km



<메트로경제>는 기업독자를 위한 심층보도를 통해 자유경쟁 시장의 가치를 더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콘텐츠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응원하며 대한민국을 더 융성하게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metro 경제  
구독문의: 02) 721-9841

## 부 고

화담(和談) 능성(綾城) 구(具)公 본무(本茂)께서  
2018년 5월 20일 오전 9시 52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차분하고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가족 외 조문과 조화를 정중히 사양합니다.

생전 자신으로 인해 번거로움을 끼치고 싶지 않아했던 고인의 뜻에 따른 것이오니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애도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가족 일동 드립